ELIO'S LITTLE DISCOVERIES

The Nest by the Window

창문 옆 둥지 · 두 사람의 바람 나란히 쓰기



11세 · Day 074 · 함께 읽기 · 3장면



But Bori was looking at the fence. The bird was still there, not coming back. “I think she’s waiting for us to go,” Bori whispered. “To her, we must look like two giants.”



Elio frowned. “But I want to watch them hatch,” he said. “That only happens once.” He did not want to frighten the bird, but he did not want to miss anything, either.



Mum came in and shut the window gently. “You both want something good,” she said. “Elio wants to watch, and Bori wants the bird to feel safe. Could we do both?”

함께 발견해요

읽기 전

표지의 창문과 담쟁이 속 둥지를 보고, 새가 우리를 보면 어떻게 느낄지 이야기해 봐요.

함께 읽을 때

엘리오가 울타리 옆에서 창문을 돌아보는 장면에서 잠깐 멈추고, 새의 자리에서 보면 무엇이 보이는지 함께 생각해요.

생각 나누기

엘리오와 보리는 각각 무엇을 원했나요? 천과 작은 틈은 두 사람의 바람을 어떻게 함께 지켜 주었나요?

생활에서

산책길에서 새를 보면 멀리 서서 조용히 지켜봐요. 둥지를 만지거나 가까이 가지 않아요.

오늘의 그림과 이야기를 함께 즐기는 과정이에요. 혼자 읽기나 말하기를 시험하지 않아요.

ELIO original story · 제1판
교육자·보호자·아이의 사용 검토는 별도로 필요합니다.